Entertainment p/15

윤소리 "웃기는 여자예요"

metro

메트로 2013년 9월 12일 목요일

Sports p/21

'올리와 보니 주신수 없네'

교육비 1000만원 넘는 사립초

NEWS p/02

수리비 '뻥튀기' 수입차 손본다

NEWS p/03

봉평, 메밀꽃 필 무렵

FESTIVAL p/10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03.65 (+8.79)	529.54 (+9.19)	2.94 (-0.03)	1085.50 (+1.00)

뉴스 & 뉴스

8월 취업자 11개월래 최다

● 8월 취업자 수가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일 통계청은 '8월 고용동향'을 내놓으며 지난달 취업자는 2529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만2000명 증가해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대가 지난해 8월보다 3만6000명 줄어 1년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30대 취업자도 2만3000명 줄었다. 반면 50대는 같은 기간 23만8000명, 60세 이상은 18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한편 구직 단념자는 16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2000명 감소했다. /장의호기자

기업 빚부담 작년보다 개선

● 국내 기업들의 빚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71곳의 이자보상배율은 4.97배로 1년 새 20.3% 높아졌다.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의 5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들 상장사는 영업이익 1000원당 201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원 줄어든 금액이다. /김현정기자

연금복권520 제115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7조	124698
		7조	735470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344920
4등	100만원	각조	57812
5등	2만원	각조	577
6등	2000원	각조	48 18
7등	1000원	각조	8 5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문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실 공 호
사장 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인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배 차 센 터 (02)721 9865
2005년 1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388

신용카드 5장 중 1장 '휴면'…신한 '최다'

신용카드 5장 중 1장은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휴면 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러한 휴면 카드는 지난 6월 말 현재 2347만 장으로 전체 신용카드(1억1534만 장)의 20.4%에 달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의 휴면 카드가 477만 장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카드(308만 장), 현대카드(290만 장), 삼성카드(262만 장), 롯데카드(214만 장) 순이었다.

특히 국민카드의 휴면 카드 수는 1년 새 16.4%(43만 장) 급증했다.

휴면 카드의 비율은 하나SK카드(25.0%), 현대카드(22.0%), 우리카드(21.5%) 순으로 높았다.

2010년 말에 3129만 장에 이르던 휴면 카드 수는 금감원의 휴면 카드 일제 정비 등 이후 지난해부터 2300만~2400만 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im1@

이통3사-전통시장 '윈윈 짝짓기'

LG유플 스마트 결제 '페이나우' 중부·신중부 시장에 무상공급 협약 등 눈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부·신중부 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SMART) 협약'을 맺고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전통시장 스마트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LG유플러스는 중부·신중부 시장에 스마트 결제 서비스인 '페이나우(PayNow)'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페이나우는 스마트폰에 초소형 카드리더기를 부착하고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카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시간대별 판매 현황 및 매출 통계 관리 기능을 활용해 매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KT는 IT서포터즈를 앞세워 전국 23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상인들에게 스마트 기기 활용법, SNS·블로그, QR코드 등 뉴미디어 활용법과 온라인 상점 개설 방법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석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의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을 가리는 '전통시장 최고의 짓을 찾아라' 이벤트를 22일까지 시행한다. 서울 수유시장 '한심할머니', 온양 온천시장 '별반오색국수' 등이 후보 상품에 올랐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종로구 제일시장, 인천 신기시장 등과 협약을 맺고 OK캐쉬백 멤버십 제도 지원, 시장 고객센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다양한 고객체험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마케팅 도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잇따른 IT기업들의 전통시장 지원에 대해 "시장은 IT 서비스 무상 도입으로 매출을 증대할 수 있고, IT업계는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를 가져와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코스피 힘 좋다! 3개월만에 2000선 돌파 1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8.79포인트(0.45%) 높은 2003.65로 거래를 마치며 3개월여 만에 2000선을 회복하였다. 이날 서울 명동 외환은행의 코스피 지수 전광판 앞에서 직원이 활짝 웃으며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8월 가계빚 3조6000억 증가

주춤하던 가계부채가 여름휴가 지출이 늘면서 상승세를 탔다.

11일 한국은행의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3조6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7월의 증가 규모 2조8000억원보다 8000억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규모가 7월 1000억원에서 지난달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주택대출은 2조6000억원 늘어나 7월 2조7000억원보다 증가액이 작았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여름휴가철에는 자금 수요가 늘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같은 대출 규모는 지난해 11월 1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라 돈 가뭄을 겪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됐다. /정윤희기자 ujinsua@

선장 없는 'STX호' 인력 50% 감축설 일축

강덕수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STX그룹이 50% 인력 감축설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그룹의 주력 사업인 조선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 구조개편에 착수한다. 다만 대규모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측은 "STX조선해양은 인력 이탈로 인해 오히려 더 불이익이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국내 일부 자회사 지분과 중국 유럽 조선소 등을 팔아 현금화하고, 기존의 수직 계열화된 거래 구조도 바꿔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포스텍의 경우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24일까지 채권단 동의서를 받아 자율 협약을 개시한다. /이재영기자

15세부터 65세까지 '큰병 이기는 보험' 든든

최근 중년에게 발생하기 쉬운 성인병을 집중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어 화제다.

AIG손해보험의 '무배당 슈퍼(Super) 큰병 이기는 보험1304'는 기본 계약으로 골절, 화상 진단 및 골절 수술비를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보장해준다.

이 상품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중년에 걱정되는 큰 병에 대한 다양한 보장을 제공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2000만원을 지급해 가계에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암 입원일당, 방사선치료비, 암 수술비 등 다양한 선택 계약이 제공돼 필요에 따라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AIG손해보험의 무배당 슈퍼 큰병 이기는 보험1304는 15세에서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대 80세까지 연장 가능하다. 골절 진단·수술 및 화상 진단을 보장하는 기본 계약에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까지 지원되는 선택 계약 등을 구성 시, 월 보험료는 40세 남자의 경우 2만70원이다. 이 상품은 보험설계사를 별도로 만날 필요 없이 전화상담(080-432-0168)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덕수궁 롯데캐슬 '아파트+오피스텔'

중소형 위주·트리플 역세권 매력…이달 말 분양

롯데건설은 서울시청 인근 중구 순화동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된 '덕수궁 롯데캐슬'을 9월 말 분양한다.

덕수궁 롯데캐슬은 지하 5층~지상 22층 3개 동으로 아파트 296가구, 오피스텔 198실로 지어진다. 이 중 전용면적 31~117㎡의 아파트 249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이 206가구로 전체의 약 83%를 차지하며 이 중 초소형인 31㎡가 16가구, 42㎡가 15가구, 56㎡가 50가구 공급돼 1인 가구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자의 관심이 높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올해 내 계약을 하게 되면 5년간 양도세 면제는 물론 최근 발표된 8·28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덕수궁 롯데캐슬의 분양가는 3.3㎡당 1700만원대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다. 인근의 마포지역(3.3㎡당 1800만~2000만원)과 최근 분양한 왕십리 아파트(3.3㎡당 1800만원)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며 즉시 전매가 가능해 높은 프리미엄도 기대해볼 수 있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지나는 시청역과 5호선의 서대문역 모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입주는 2016년 7월 예정. 문의 02)790-9669 /정연우기자

8·28 이후 "집 살 마음 커져"

부동산114 설문 결과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이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일반인 186명과 공인중개사 121명 등 모두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구매 의향이 높아졌느냐'는 물음에 일반인의 60%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보통이다'는 19%, '아니다'는 21%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들은 '8·28대책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43%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37%는 '보통', 20%는 '아니다'로 답해 일반인들보다는 8·28대책의 효과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반영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8·28대책 이후 주택 구매 의향이 높아진 것은 4·1대책에서 포함된 연말까지 적용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과 8·28대책에서 선보인 저리자금대출 지원이 시너지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월셋값이 폭등하면서 덩달아 세입자 12만여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10% 마지노선까지 뛰어오른 점도 주택 구매 의향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상반기에 전월셋값 인상으로 건보료가 제한 폭인 10% 인상된 세입자는 모두 12만3360세대였다.

/김민지기자 sera@metroseoul.co.kr

'갤럭시노트3' 예약 가입 접수

23~24일 우선 개통 혜택

삼성전자는 15일까지 통신 3사를 통해 '갤럭시노트3'의 예약 가입을 받는다. 예약 가입 고객에게는 23일부터 2일간 우선 개통 혜택이 지원된다.

삼성전자는 예약 가입을 한 뒤 25일까지 개통을 완료하고 10월 6일까지 삼성전자 사이트에 신청한 모든 고객에게 'S뷰 커버'를 증정한다.

5.7형(144.3㎜) 풀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3200mAh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한 갤럭시노트3는 기존 모델보다 더 얇아지고 가벼워졌으며, 3GB 램을 탑재해 더욱 강력한 성능을 구현한다.

특히 화면 위에서 S펜의 버튼만 누르면 5가지 주요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에어 커맨드' 기능을 지원해 '액션 메모', '스크랩북', '캡처 후 쓰기', 'S 파인더', '펜 윈도' 등 혁신적 기능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

원광디지털대 '한·일 술수학 심포지움'

13~15일 서울캠퍼스 개최

원광디지털대(www.wdu.ac.kr)는 13~15일 서울캠퍼스에서 동아시아 술수학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주제로 '한-일 공동 술수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등양과 관련 국제 학술대회로, 올해는 원광디지털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최근 동아시아 과학사 연구에서 시급한 연구 과제로 떠오른 술수학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발표자들은 현재 한국·일본·중국·인도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로 구성됐으며 카이스트 한국과학문명사연구소·한국학중앙연구원 등 학계 및 연구 관계자 등 5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펼친다.

특히 술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일본 다이토분카대학의 미우라 구니오 교수가 13일 도쿄 '벡술의 사상적 근거: 부(符)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건설단신

대림산업 임직원·가족들 남산 식물원서 정화활동

대림산업 임직원과 직원 가족들이 지난 7일 가을을 맞아 서울 남산 야외식물원에서 남산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가을 나들이 봉사'라는 콘셉트에 맞게 직원 배우자와 자녀 1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임직원과 가족들은 여름 동안 무성하게 자란 넝쿨과 잡초 등을 제거했다. 또 직원 자녀들은 남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관찰하고, 숲 전문가에게 설명을 들으며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중근 부영 회장 기록한 저서 '6·25…' 국방부 기증

부영그룹 이중근(사진) 회장이 지난 10일 국방부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자신의 저서 '6·25전쟁 1129일' 1만5000권을 기증했다.

국방부는 기증받은 책을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10월 1일) 각 군에 보급해 장병들이 6·25전쟁의 실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참고 도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6·25전쟁 1129일'은 전쟁 발발부터 정전협정까지 매일의 날짜, 전황, 국내외 정세와 관련국 연보 등을 집대성해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편년체 역사서다.

구석구석

◆보성전어축제

날짜 9월 13~15일

장소 전남 보성군 율포솔밭해변 등

가을철 별미인 전어를 주인공으로 하는 보성전어축제는 득량만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전어와 풍부한 놀거리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는다. 축제에서는 전어 잡기, 전어구이 체험, 전어요리 시식회 등의 체험 행사와 축하공연, 관광객 어울 마당, 지역 특산품 전시 및 판매 행사가 열린다. 특히 율포해수욕장에서는 전어를 직접 잡아 즉석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다.

◆황순원문학제

날짜 9월 13~15일

장소 경기 양평군 소나기마을

황순원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황순원문학촌인 소나기마을에 대한 관심과 문학인들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된 문학제다. 황순원문학 심포지엄, 소나기마을문학상 시상식, 황순원시어버회대장 시상식, 작가와 함께하는 황순원 문학촌 기행, 문학 강연, 황순원 문학과 영화 다시보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마량미항축제

날짜 9월 13~15일

장소 전남 강진군 마량면 일원

전국 최초로 어촌·어항 복합공간으로 조성돼 전국에 널리 알려진 전남 강진군 마량항에서 열리는 축제다. 살아있는 청정 해역을 무대로 펼쳐 맨손 잡기 체험 및 시식 코너, 마량미항 노래자랑,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마을별 노 젓기, 해양구조단 인명구조 시범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 마량면의 자랑인 천연기념물 까막섬 상록수림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해마다 9월이면 봉평엔 눈이 내린듯 새하얀 메밀꽃밭이 장관을 이룬다.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지역축제로 승화시킨 '평창효석문화제'는 눈부신 ○○의 가을의 낭만을 더한다.

메밀꽃 필 무렵의 낭만 100리길

봉평 '제5회 평창효석문화제' 22일까지 손짓
허생원·동이의 여정 재연…목화커피 체험도

가산 이효석 선생의 대표적인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자 선생이 나고 자란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서 '제15회 평창효석문화제'가 22일까지 계속된다.

해마다 9월이 되면 들녘을 덮는 하얀 메밀꽃으로 장관을 이루는 메밀의 고장 봉평에서 열리는 축제는 허생원과 동이의 미래까지 오롯이 담고자 올해는 '이효석의 꿈'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가을에 떠나는 낭만여행 1번지

'메밀꽃 필 무렵'은 봉평에서 대화로 이어지는 80리 밤길에서 허생원이 조선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메밀꽃밭은 소설의 한 축을 담당했다. 축제 기간 동안 메밀꽃밭 천국이 되는 봉평은 메밀꽃이 만들어내는 하얀 융단과 꽃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로 인해 낭만여행 1번지로 꼽힌다. 올해도 어김없이 효석문화마을 일원에 메밀꽃밭이 조성됐으며 꽃밭 사이로 만들어진 오솔길이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안내한다.

낭만에 여유를 더해줄 효석문학 100리길도 만날 수 있다.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허생원과 동이의 여정과 가산 이효석 선생이 평창에서 학교에 다닐 때 걸었던 길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조성된 명품 걷기길이 가을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다.

◆문화·문학·포토 등 6개 체험존

올해 축제는 2개의 큰 마당(이효석 마당, 봉평장 마당) 속에 6개의 존(메밀꽃 문화존, 이효석 문학존, 메밀꽃 소설존, 메밀꽃 포토존, 봉평장 소설존, 충주집 소설존)으로 구성된다.

특히 메밀꽃 문화존에서는 클래식 콘서트와 함께 메밀꽃밭을 밝히는 경관 조명 속에서 주제 공연인 '이효석의 꿈'이 공연된다. 월요일에는 젊은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메밀꽃밭 콘서트와 이효석 선생이 즐겨 마셨다던 목화커피를 직접 제조해 마시는 커피 체험 카페가 열린다. 메밀꽃을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메밀꽃 포토존도 운영된다. 메밀꽃 소설존에서는 꽃밭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거닐며 '메밀꽃 필 무렵'을 감상할 수 있다.

봉평장 마당인 충주집 소설존에 위치한 주막에서는 다양한 메밀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폭설사와 함께 축제장을 누비는 이효석달런대와 소설 속 명장면을 재연하는 거리 상황극 등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소설 속 공간·이효석 숨결 그대로

효석문화마을과 이효석문학관에서는 소설로만 만나던 이효석과 허생원·동이를 만날 수 있다.

효석문화마을에는 '메밀꽃 필 무렵'의 실제 배경 마을로 허생원과 동이가 드나들던 주막인 충주집, 허생원과 성씨 처녀가 사랑을 나누었던 물레방앗간이 재현돼 있고 이효석의 생가, 평양에 살던 때의 푸른집과 복카페 집필촌 등이 조성돼 있다.

이효석문학관은 가산 이효석 선생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연대기별로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선생의 유품과 초간본, 작품이 발표된 잡지와 신문 등이 전시돼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날짜 9월 22일까지
−장소 강원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
−문의 이효석문화선양회 033)335-2323, 평창군 문화관광과 033)330-2771

'가을낭만 2번지' 이름도 향기로운 붓꽃섬

평창이 품은 명소들

메밀의 고장인 '평창'은 평균 해발 700m 고지대로 가을 정취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맑은 하늘과 공기를 머금고 있는 평창의 가을을 만나보자.

◆고소한 잣 향기와 상쾌한 숲 향기 가득한 붓꽃섬

하늘에서 보면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긴 붓꽃섬은 흥정천이 두 갈래로 갈렸다가 두이천과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한 6000평 규모의 섬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고소하면서도 상쾌한 향기를 뿜는 잣나무 숲을 방문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이곳에 들어선 아트인 아이리스아일랜드란 이름의 펜션(11동)과 오토캠핑존(10사이트)은 이미 가을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폐교에 조성한 평창무이예술관

평창무이예술관은 폐교를 복원해 조성한 예술인 촌으로 서양화가 권연서·조각가 오상욱·도예가 권순형·서예가 이천섭 등이 창작 활동을 하는 곳이다. 운동장은 대형 조각 작품이 전시되는 야외조각공원으로 꾸며져 있으며 예술관 앞은 넓은 메밀꽃밭으로 조성돼 봉평 낭만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여덟 바위의 전설 '팔석정'

팔석정(사진)은 이름 때문에 정자로 오인하기 쉽지만 봉평면 흥정계곡에 있는 여덟 개의 바위다. 조선 전기 4대 서예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양사언(1517~1584)이 흥정계곡 물길에 자리한 바위들이 소나무와 어우러진 경치에 반해 이 여덟 바위에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진다. /황재용기자

척추관협착증 '수술 대신 시술'로 치료

일반인엔 낯설지만 노년층엔 허리디스크만큼 흔한 질환
절개없이 30분만에 끝내는 꼬리뼈내시경레이저 등 각광

척추관협착증은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일반인들에게 낯선 질환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리디스크만큼 자주 발병하는 척추질환으로 특히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허리디스크와 복합적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다.

김주현 세바른병원 대표원장은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노화로 인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고 그에 따라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허리에 통증이 나타난다는 점 때문에 허리디스크로 오인하기 쉬운데 척추관협착증은 엉덩이 쪽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고 다리의 통증 역시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런 통증이 있을 때는 환자 본인이 질환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수술 않고도 척추관협착증 잡는 비수술 치료법

과거에는 척추관협착증을 비롯한 척추질환 치료는 우선 운동치료나 약물치료를 시행했고 이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바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술은 전신마취와 피부 절개, 긴 회복 기간 등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상당했다.

김주현 세바른병원 대표원장이 모형을 이용해 척추질환이 발생하는 부위를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이 아닌 시술을 통해 30분 내외로 척추관협착증을 치료하고 있다.

비(非)수술 척추 치료로 대표적인 시술 중 하나는 꼬리뼈내시경레이저시술이다. 내시경이 부착된 관(카테터)을 척추에 삽입해 통증이 있는 부위를 관찰하며 레이저로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그 외에 통증을 유발하는 유착, 염증 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셈이다.

시술 시간은 30분 내외이며 국소마취 후 피부 절개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시술이 가능하다.

또 회복 시간이 빨라 시술을 받은 뒤 당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며 CT나 MRI로도 확인이 어려운 병증을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플라스마감압술과 DNA프롤로치료 역시 자주 시행되는 비수술 척추 치료법이다. 플라스마감압술은 디스크가 튀어나와 주변의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는 시술로 1mm 정도의 가는 주삿바늘을 통해 튀어나온 디스크에 직접 플라스마광을 발생시켜 디스크 내부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손상이 발생한 부위에 초음파 및 영상유도장치를 통해 DNA 자극용액을 주입해 정상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방안DNA프롤로치료도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시술이다.

김주현 대표원장은 "DNA프롤로치료는 척추질환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어깨 등 관절질환에도 효과적이며 신체의 재생 기능에 주목한 근본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체(?)기자

시판 콘택트렌즈 7종 불량

식약처, 17개 제품 수거·검사

국내에서 판매되는 콘택트렌즈 제품 17개 중 7개 제품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이 곡률 반경 및 두께 등의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해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지엔지콘택트렌즈 'G&G BT' ▲뽀비젼 '데이즈' ▲오케이비젼 '슈너 믹스 렌즈' ▲니케아이노비젼(주) 'SM-700이—아' ▲듀바콘택트렌즈 '메사야' ▲(주)네오비젼원주지점 '네오 코스모' ▲(주)티씨사이언스 '트윈'등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콘택트렌즈 구입 시에는 제품에 기재된 허가 사항 및 유효 기한을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안경업소에서 구입해야 한다.

콘택트렌즈 허가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 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추석 건강식품 '효능' 따져 선물

동원몰 회원대상 설문

소비자들은 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효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전문 소핑몰 동원몰이 3일부터 8일까지 회원 1119명을 대상으로 '올 추석 건강기능식품 선물 구매 트렌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선물을 살 때 효능을 가장 중시한다는 응답자가 47.8%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브랜드 선호도(25.5%)와 가격(20.6%)이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가격대로는 3만~5만원이 36.3%로 1위를 차지했고 5만~7만원대(22.6%), 2만~3만원대(18.1%) 등의 순이다.

건강기능식품 선물 종류(중복 응답 가능)로는 홍삼(55.7%)에 이어 종합비타민(42.2%)이 2위를 차지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이 많은 만큼 구매를 할 때는 잘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전문 교육을 받은 영양상담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지은기자 jelee@

복음보청기 최대 140만원 보상 할인

25일까지 한가위 사은행사

복음보청기가 추석을 맞아 25일까지 보상 판매와 한가위 사은행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난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구매 제품에 따라 최고 140만원까지 보상 및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리미엄 렌털 서비스 큰 통해 저렴한 비용(가입비 별도)으로 최신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벤트 기간에는 음성증폭기를 보청기로 오인해 잘못 사용하는 난청인들의 청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음성증폭기까지 보상 판매한다.

특히 복음보청기는 소비자가 프리미엄 상품에 가입할 경우 2년마다 동급 신제품으로 기기를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청기 사용에 미숙한 초보 사용자나 보청기 조작에 서툰 고령층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기억 기간 동안 무상 AS는 물론 배터리 교체, 기기 유지·관리 피팅 등 토털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 www.bokeum.co.kr

/황재용기자

치매극복 강좌 듣고 검진

이대병원 27일 무료 진행

이대목동병원이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27일 병원 대강당에서 '뇌가 즐거운 인생 - 행복한 기억 찾기'를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좌 내용은 ▲'치매의 정의 및 역할'(신경과 심재향 교수) ▲뇌 건강 실천 방법(신경과 김선미 교수) ▲'치매 예방 운동'(운동보 운동처방사) 등이다.

참석자 전원에게 운동용 물 도시 치매 예방 교육 자료와 농심의 '백두산 백산수'가 제공된다. 또 만 60세 이상 참석자들에게는 치매 무료 검진 기회가 주어진다. 문의 (02)3663-0943~6

/황재용기자

2013 Seoul Wind Festival 해외초청공연
세종문화회관
뉴시스 공감콘서트 '가을'
러시아 국립 윈드오케스트라 한국 초연
RED ARMY WIND ORCHESTRA
MUSIC DIRECTOR, SERGEI DURYGIN
지휘 세르게이 듀리긴
2013. 10. 6. SUN. 5 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Glinka Overture to the opera Ruslan and Lyudmila
Tchaikovsky Polonaise from the opera "Eugene Onegin
Strauss Couplets of Adele from the operetta "Die Flede ma
Gounod Juliet's Waltz" from the opera "Romeo and Juliet
Fantasy on Russian folk themes
"이 오케스트라의 모든 단원은 예술가들이었고, 그 중 몇 명은 거장이었다.
이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A. Khachaturian
티켓 | VIP 10만원 | R 7만원 | S 5만원 | A 3만원 | B 2만원
예매·문의 | 세종 인포샵 02)399-1114 인터파크 1544-1555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할인정보 | 서울윈드페스티벌 패키지 티켓 50%(R석에 한함), 10월 시민예술제 공연티켓 소지자 30%, 세종문화회관 유료회원 프리미엄 30%, 골드 20%, 청소년(만 7~24세 동반 1인) S·A석 30%, B석 50%, 단체 20인 이상 20%, 30인 이상 30%
주최 | 세종문화회관 NEWSis
주관 | 세종문화회관

아몬드 하루 한줌 '건강·뷰티·에너지' 충전

무더위에 지친 몸 · 피부엔 천연비타민E 등 영양많은 아몬드 '최고의 가을간식'

제법 선선해진 바람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낀다. 계절이 바뀌고 있지만 지난여름이 남긴 흔적은 생각보다 많다. 강한 자외선에 거칠어진 피부와 무더위에 지친 몸이 대표적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몸속의 영양과 에너지를 듬뿍 채워줄 건강 간식 '아몬드'. 비타민E와 단백질·식이섬유, 각종 미네랄을 함유한 '영양의 보고' 아몬드의 매력은 날날이 파헤쳐봤다.

◆아몬드는 최고의 '건강 간식'

아몬드는 하루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해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준다.

풍부한 단백질·식이섬유·불포화지방산은 공복감을 완화시키고,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막아준다. 특히 고소한 맛과 풍미가 일품이다.

아몬드를 유리병에 가득 담아 식탁·책상 등 가까운 곳에 놓아두거나, 한 줌(약 23알)을 조그만 통·지퍼백 등에 담아 가방에 휴대하면 집이나 회사는 물론 이동 중에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아몬드는 최고의 '뷰티 간식'

피부가 매끈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의 뷰티 관리 노하우 중 하나가 아몬드다. 이너뷰티는 실제 피부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한 줌의 아몬드는 익힌 브로콜리 반 컵 또는 녹차와 거의 동일한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돼 있어 '항산화'에도 효과적이다. 때문에 안티에이징의 일부[illegible] 하고 있다. 또한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쉽게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 중인 여성들에게 인기다.

◆아몬드는 최고의 '에너지 간식'

하루를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는 데 필요한 요소로는 어떤 게 있을까. 하루 세 끼를 꼬박 챙겨도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진정한 건강 간식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칼로리와 첨가물이 함유된 간식 대신 아몬드를 섭취하면 몸에 이로운 영양소를 보충해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illegible] 를 매끈하게 가꿔주고, 각종 영양소를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연예인들이 즐겨 찾는 '에너지 간식'으로 알려져 있다. /박지원기자

■최고의 매력 간식 아몬드 제대로 즐기기

– 언제 어디서나 아몬드와 함께! 회사 책상, 가방 등에 가지고 다니면서 허기지거나 집중력 향상이 필요할 때 아몬드를 꺼내 먹는다.

– 좋아하는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아몬드 본연의 맛보다 풍부하고 색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다.

– 가족·친구·직장 동료와 함께! 좋은 것은 나눠 먹어야 제맛. 소중한 사람들이 아몬드의 매력에 빠지면서 어느새 [illegible] 당신의 매력에 눈뜰지도 모른다.

제수용 부위만 모은 한우세트 40% 할인

의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13일까지 실속 부위로 구성된 한우선물세트를 선착순 200명에 한정해 특가로 판매한다.

강강술래는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꼭 필요한 제수용 인기 부위만 담은 '한우 정선3호'(국거리·불고기·산적 각 600g)를 40% 할인된 5만4000원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한우양념불고기(900g)와 소양념구이(52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900g) 등 인기 품목으로만 구성된 '한가위 세트'도 40% 할인된 6만원에 선보인다.

HACCP 인증 시설에서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며, 빙부제·색소·조미료 등을 일절 넣지 않은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 5팩 15인분)는 3만9100원, 소용량세트(350㎖ 5팩 10인분)는 2만2900원 등 최대 35% 할인한다.

한우 정육 부위나 잡육 대신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칠칠한우떡갈비세트'(3박스)는 4만7500원, 두뇌 활성을 돕고 심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피약개질 감량에 도움을 주는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세트(3박스)는 3만700원에 내놨다.

을왕리 '골든스카이' 한가위 야외콘서트

서해안의 명소 을왕리해수욕장에 위치한 골든스카이 호텔&리조트가 추석 연휴를 맞아 19일 골든스카이 호텔&리조트 내 야외 특설 무대에서 특별한 가을 콘서트 '가족사랑 한가위 콘서트'를 개최한다.

골든스카이 호텔&리조트는 온 가족이 다함께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특설 무대 주변으로 펼쳐지는 서해안의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재즈·성악·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준비했다.

콘서트는 방송인 이지연씨의 사회로 진행되며 안지환·박강성·위일청과 서울패밀리·소프라노 제미영·피아니스트 윤강욱·이동기 재즈밴드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또 행사장 내에서는 간단한 스낵을 즐길 수 있고 리조트 내부의 골든스카이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현대 한국화 표현 작가전'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골든스카이 호텔&리조트 관계자는 "황금연휴를 알차게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번 콘서트를 마련했다"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공연과 함께 문화의 밤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정순기자

metro entertainment

"제가 사실, 이 영화처럼 한 개그해요"

첫 코믹연기로 관객 접투
설경구와 호흡 척척 신기
내 안의 욕심을 내려놨죠

'스파이' 주연 문소리

배우 문소리(39)가 숨겨온 코믹 본능을 발산했다. 출산과 육아로 공백기를 보내고 4년 만에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스파이'는 개봉 첫 주에 전국 관객 100만 고지를 훌쩍 넘어섰다. 국가정보원 요원 철수(설경구)의 아내 영희 역을 맡아 몸 개그와 쫄깃하게 맛을 살린 대사, 구수한 사투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흥행에 톡톡히 한몫했다.

▶처음 하는 코미디 연기가 탁월하다

앞서 '하하하'나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 때도 코미디 연기를 펼지만 장르 영화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래 좀 웃긴 편이라 평소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코미디를 해보라는 얘기를 간혹 했다.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작품에 몸을 맡기는 심정으로 연기했다.

▶설경구와 '오아시스' 이후 11년 만에 다시 연기한 소감은

2년 전인데, 먼저 캐스팅된 경구 오빠가 전화를 걸어와 출연 제의를 했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왠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박하사탕'에서 처음 오빠를 만났을 때는 무서워서 말도 못 붙였다. 촬영하며 눈을 마주친 건 영화 속 마지막 신에서 딱 한 번뿐이다.

'오아시스' 때는 오빠가 나를 많이 챙겨주려 했지만 내가 늘 초죽음 상태였다. 이번에 비로소 서로 넉넉하고 편안한 상태로 만나게 됐다. 촬영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협의를 하지 않아도 신기할 정도로 호흡이 척척 맞았다. 그동안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늘 애틋함이 있었던 것이 연기 호흡으로 나타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를 하나

아기 얘기다. 오빠 아들이 내 딸보다 한 살 많고, 생일이 하루 차이다.

▶촬영 중 감독이 바뀌는 등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제작진이든 배우든 모두 아쉬움이 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영화가 마무리된 데 감사한다. 첫 주에 100만 관객을 넘기고 순항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나.

▶다니엘 헤니는 영화 속 설정처럼 실제로도 매력적인가

정말 그림처럼 잘생겼다. 비현실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어서 내가 따로 연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리액션이 나왔다. 영화 속에 로맨스도 있으니까 누나라 부르지 말고 서로 이름을 부르며 편하게 지내자고 했다. 사람이 꼬인 데 없이 참 편안하다.

▶영화가 흥행하고 있어서 홍보 활동에 큰 부담이 없겠다

SBS '힐링캠프' 녹화를 했다. 23일에 방송되는데 걱정이다. 나보고 너무 진지한 이미지를 지녔다며 좀 풀어보자고 하더라. 그러면서 노래방 기계를 틀더라. 차분하게 여배우의 인생에 대해 얘기하고 오려 했는데 노래만 부르고 왔다. 게다가 남자에게 인기가 많다며 남자 얘기도 한참을 했다. 차라리 진지한 이미지로 남을 걸 그랬다.

▶남편 장준환 감독도 '지구를 지켜라' 이후 10년 만에 새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를 다음달 선보인다

많은 사람이 기대해서 부담이 큰 것 같더라. 촬영하며 체중도 8kg이나 줄었다. 외계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르적인 영화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용기를 줬다.

▶현재 촬영 중인 '관능의 법칙'에서는 수위 높은 노출 연기를 하나

40대 여자의 관능을 안으로 풀어야지 몸으로 풀어서 되겠나. '바람난 가족'처럼 깊은 얘기가 아니고 '섹스 앤 더 시티'처럼 진한 얘기도 아니다. 40대의 성과 사랑을 경쾌하게 푼 영화다. 우리(조민수·엄정화·문소리)가 너무 벗고 나오면 보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언니들은 얼마나 벗는지 나도 궁금하다.

▶학업 욕심도 큰 것 같다

건국대 영화학과 초빙교수로 3년째 연기를 강의 중이고, 이번 학기부터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유연해지기 위해 뭐든 하려고 한다. 엔터테이닝을 위한 것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라운드테이블) 디자인/[illegible]

star bag

'베스트 뉴 아티스트' 1위 차지

빅뱅 지드래곤이 국제적인 인기를 과시했다.

미국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인 퓨즈TV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10일(한국시간)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베스트 뉴 아티스트' 인터넷서베이 팬 부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지드래곤이 1위를 차지했다. 해당 부문의 후보에는 2NE1의 씨엘과 일본의 캬리 파뮤파뮤, 벨시코의 벨린다, 인도와 프리얀카 초프라 등도 이름을 올렸다.

'총리와 나' 남녀주인공 물망

배우 이범수와 소녀시대 윤아가 스무 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KBS2 새 월화극 '총리와 나' 남녀 주인공으로 물망에 올랐다.

12월 방송될 이 드라마는 여성 가정교사가 총리의 저택에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범수는 총리 역으로 출연이 유력하고, 윤아는 가정교사 역을 제안받고 신중하게 검토 중인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기증 광고 내레이션 참여

배우 장혁과 최지우가 장기기증 광고에 목소리를 기부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11일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제작된 영상에서 두 사람이 내레이션을 맡았다"면서 "2009년 뇌사 장기기증을 통해 6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고 최요삼 선수의 이야기를 차분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전했다"고 밝혔다.

코믹송 '—고향가는 길' 발표

개그맨 이정수가 추석을 맞아 디지털 싱글 '추석송-고향가는 길'을 발표했다.

이 싱글은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고향에 다녀오자는 내용을 코믹하게 표현한 곡으로 11일 음악 사이트에 공개됐다. 이정수는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다. 노래는 못하지만 재미와 감동을 전하려 노력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황정음·이다희·배수빈(왼쪽부터)이 KBS2 새 수목극 '비밀' 제작발표회에서 드라마 제목을 연상시키는 포즈를 엄지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이보영·이종석>

지성 "키스신 보고 울었다"

수목극 '비밀' 제작발표회

이달 비슷한 시기에 각각 결혼하는 지성과 배수빈이 행복한 심경을 드러냈다.

27일 이보영과 결혼식을 올리는 지성은 1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BS2 새 수목극 '비밀' 제작발표회에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다. 이렇게 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둘 다 배우라서 편하게 사랑하지 못했다. 매년 주위에서 순탄하게 내버려두지 않았고, 우리도 바쁠 때는 서로 신경 써주지 못했다. 그래도 늘 믿었기에 결혼에 골인하게 된 것 같다"면서 "이번 작품을 하는 것도 (보영이가) 이해해줬다. 그만큼 결과가 좋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얼마 전 이보영이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도 "보영이가 (이)종석이와 키스신을 찍었을 때 주위에서 '열 받아서 어떡하느냐'고 걱정하는 문자를 많이 받았다. (웃음) 그러나 나는 오히려 설렘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재밌게 봤다"고 변함없는 믿음을 내비쳤다.

지성보다 앞서 14일 8세 연하의 대학원생과 결혼하는 배수빈은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배우로서 도전해볼 만한 역할이라는 생각에 합류했다"면서 "황정음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느라 바쁜데 지성과는 공통된 화제가 있어 잘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글쓰기 접고 연기 열공"

'거짓말 논란' 클라라 "장학금·의료비 지원은 계속"

거짓말 논란과 적절하지 못한 해명으로 구설에 오른 클라라(사진)가 절필을 선언했다.

그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도 이제야 스케줄이 끝났다"고 근황을 전한 뒤 "그동안 너무 많은 생각을 글로 남겼다. 이제 글은 그만 쓰고 마음 공부하고 연기 공부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로 인해 불편하셨던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단 기존에 해왔던 장학금 지원과 의료비 지원은 힘 되는 한 계속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클라라는 방송 중 잦은 말 바꾸기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퍼(지칸+팩주)을 싫어한다"고 말했다가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서는 "지퍼 마니아"라고 하는가 하면, 한 토크 프로그램에서 "연예인과 사귄 적 없다"고 말했다가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톱스타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엇갈린 발언을 했다.

5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 출연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클라라가 "야간 매점" 코너에서 선보인 '소시지 파스타'가 이미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다른 사람의 레시피라는 것이 드러나 도용 의혹을 받았다.

또 클라라는 "오늘 처음 도전한다"며 능숙하게 요가 동작을 선보였지만, 지난 2월 MBC '에브리원 싱글즈2'에서 요가 강습을 받는 장면을 촬영한 일도 뒤늦게 드러나는 등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트위터에 "재미를 우선시하는 예능을 했다. 진실을 담보하는 다큐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더욱 싸늘하게 식었다.

당시 클라라는 "지퍼 싫어하는데 친구들과 분위기가 좋아서 지퍼 좋아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인가? 요가 배운 적 없는데 잘하면 거짓말인가?? 스위스에서 나고, 미국에서 배우고, 국적이 영국이라서 여러분 말씀대로 한국 정서를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박선영기자 tsk0427@metroseoul.co.kr

한류스타팬들 '기부천사'

박유천 도서관 건립 1억 기탁
장근석 생일기념 나눔 사진전
팬클럽 선행 릴레이 훈훈한 감동

톱 한류스타의 팬들이 의미 있는 선행 경쟁을 벌이고 있다.

JYJ 박유천의 팬클럽 블레싱유천은 최근 창립 3주년을 맞아 전남 신안군 장산면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설립했다. '박유천 도서관'이라 이름 붙인 이곳에 회원들이 모은 1800여 권의 책과 문구류, 현금 500만 원을 함께 기부했다.

블레싱유천은 30세 이상의 여성들로 구성된 팬 커뮤니티로 그동안 폭삭 환우 수술비 지원, 소아암 어린이 돕기, 저소득층 아동 무료 급식비 지원, 수해 복구 지원 등에 총 1억여 원의 모금액을 기부했다.

장근석 팬클럽 크리제이는 14~15일 강남역 지하브게에서 '2013 장근석 생일 기념 나눔 사진전'을 개최한다. 장근석의 생일(26일)을 앞두고 팬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전시하고 입장료 수익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크리제이는 지난해에도 생일을 맞아 '926 이벤트'를 열어 926만 원을 모금해 기부했고, 2개월에 한 번씩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데뷔 10주년을 맞는 그룹 동방신기의 팬들은 자발적으로 모금한 돈으로 11월께 여의도 인근에 '동방신기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드래곤은 최근 단독 콘서트의 팬 이벤트를 통해 모은 돈을 아이티의 얼어장 설립 비용으로 기부했다.

/장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가을감성 자극하는 세 남자

버스커버스커 25일 컴백

봄을 장악했던 3인조 밴드 버스커버스커가 가을송을 들고 돌아온다.

버스커버스커의 소속사 청춘뮤직은 11일 "정규 2집 음원은 25일 오전 0시에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공개되며 음반은 25일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가을밤과 함께 시작하는 버스커버스커의 두 번째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엠넷 '슈퍼스타K 3' 준우승팀인 버스커버스커는 지난해 3월과 6월 두 장의 앨범을 발표하고 '벚꽃엔딩' '여수 밤바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등 여러 곡을 히트시키며 음원과 음반 차트를 휩쓸었다. 특히 앨범 수록 곡들은 봄을 대표하는 시즌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지난해 하반기 여루로는 활동을 전면 중단해 해체설과 불화설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올해 초 청춘뮤직과 계약하고 팬들의 우려를 씻어냈다. 이들은 앨범 발매와 함께 다음달 3일 부산을 시작으로 20일 대구, 11월 1~2일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보르코시건 시리즈★
명예의 조각들
15화 글·그림 이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저술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판되 판매중입니다

30세기 인류는 어떤 모습일까?

우주로 진출한 인간들이 수많은 행성을 배경으로 펼치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인간미 넘치는 스토리

어린시절 과학의 날이면 늘 공상과학 그림그리기 숙제가 있었다. 우주를 여행하는 비행기, 하늘을 나는 자동차, 꿈만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느새 현실로 나가오고 있다. 2015년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 현재 우주여행 신청자들을 받고 있다고 하니 말이다. 이렇게 우리들의 상상력을 넘어 과학은 발전해 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0년 후인 30세기 인류의 모습을 어떠할까? 보르코시건 시리즈는 30세기 우주를 바탕으로 장대한 스토리가 펼쳐지는 미래소설이다. 자유와 평화의 상징 코델리아, 명예와 충정의 상징 아랄, 장애를 극복하고 우뚝 선 주인공 마일즈의 이야기를 통해 완벽할 것 같은 미래사회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저자는 30세기에서 보여지는 장애인과 여성 등 소수자의 인권 문제, 정치 갈등, 사회 문제를 추리소설, 로맨스 소설, 전쟁 소설 등의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따뜻하고 위트 있게 그리고 있다. 배경은 우주이고, 과학은 발전했지만 그 스토리만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깊이 닮아 있다. 그래서 그런지 한번 책을 잡으면 끝까지 손을 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흡입력이 강하다. 30세기 우주에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책을 펼쳐보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How is the weather today? 날씨에 대해 말하기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은 상당히 춥네요.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오늘은 봄의 첫 날이에요.
오늘 기온이 몇 도인가요?

→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How is the weather today?
It is quite cold today
The days are getting hotter
Today is the first day of spring
What's the temperature today?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illegible]

A How is the weather these days?
B The days are 점점 더워지는.

정답 getting hotter

▶ 패턴 훈련

[illegible]

1 How is the weather today in California / New York?

2 The days are getting hotter / warmer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특정부사

▶ 의미나 쓰임새 주의해야 할 부사들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단어	fast 빠른 – fast 빠르게 late 늦은 – late 늦게 hard 열심인 – hard 열심히
ly를 붙이면 의미가 달라지는 부사	hard 열심히 – hardly 거의 ~아니다 late 늦게 – lately 최근에 near ~ 근처에, 가까운 – nearly 거의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 다음 문장을 두 번 읽어보세요.

1 He got up late. 그는 늦게 일어났어요.
2 I hardly know her. 전 그녀를 거의 몰라요.
3 I haven't seen her lately. 최근에 그녀를 못 봤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Amnorth Premium paints are highly ______ to most stains and can be cleaned easily with soap and water.
(A) resistance (B) resisted
(C) resistant (D) resists

02 Because Legolos Compan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customer information, it has made data privacy a high ______.
(A) conformity (B) liability
(C) priority (D) seniority

01 [illegible]
해설 [illegible]
어휘 be resistant to ~에 강하다, 잘 견디다 highly 매우 stain 얼룩
정답 (C) resistant

02 [illegible]
해설 [illegible] (C) priority를 쓴다
어휘 [illegible]
정답 (C) priority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3. 듣고, 질문에 답하기

What 의문문

[illegible]

Q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you look for in a job?
[illegible]

A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I look for in a job is the pay. [illegible]
the benefits. [illegible]
the working hours. [illegible]

Q What kinds of shoes do you usually wear to work or school?
[illegible]

A When I go to work, I usually wear sneakers. [illegible]
high heels. [illegible]
dress shoes. [illegible]

"에비앙 우승 느낌 아니까"

박인비 대회 1·2R 청야니와 한조… 캘린더 그랜드슬램 재도전

골프 여제 박인비(25·KB금융그룹·사진)가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총 상금 325만 달러·약 35억원) 1~2라운드에서 청야니(대만)·카트리나 매슈(스코틀랜드)와 같은 조에 편성됐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11일 발표한 1·2라운드 조 편성표에 따르면 박인비는 12일 오후 3시18분 프랑스 오트사부아주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장(파71·6428야드) 10번홀에서 청야니·매슈와 함께 1라운드를 시작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LPGA 챔피언십, US오픈에 이어 한 해에 메이저 4개 대회를 석권하는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이루게 된다.

한편 신지애(25·미래에셋)는 미야자토 아이(일본)·폴라 크리머(미국)와 함께 경기한다. 재미동포 미셸 위(24·나이키 골프)는 타이거 우즈의 조카인 샤이엔 우즈, 미녀 골퍼 내털리 걸비스(미국)와 같은 조에 편성됐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토마스 바흐 IOC 새 위원장이 총회의 결말을 믿는 듯한 사늘을 쥐고 있다 /AP 뉴시스

올림픽챔프 출신 IOC 위원장 탄생

독일 토마스 바흐 뽑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새 위원장으로 토마스 바흐(60·독일) IOC 부위원장이 선출됐다.

IOC는 1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125차 총회를 열고 바흐 부위원장을 제9대 위원장으로 뽑았다.

바흐 새 위원장은 2차 투표에서 유효표 93표 중 과반인 49표를 획득했고, 리처드 캐리언(61·푸에르토리코) IOC 재정위원장이 29표로 뒤를 이었다. 이번 투표는 6명이 출마해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바흐 새 위원장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펜싱 남자 플뢰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출신이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IOC 위원장이 되기는 IOC 119년 역사상 처음이다. 또 독일인으로는 최초로 IOC 수장에 올랐다.

바흐 새 위원장은 "IOC는 아주 훌륭하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다. 올림픽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조화를 이뤄 연주하자"고 소감을 밝혔다. /조성준기자

추신수 7경기연속 안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11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팀은 1-9로 완패했다.

한편 임창용은 추신수가 교체된 뒤 8회말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한국인 메이저리거들끼리의 투타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임창용은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안타와 볼넷, 몸에 맞는 공을 하나씩 내주고 폭투까지 저지르는 등 불안한 제구력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조성준기자

"끝내기포 슬라이크 물바가지 받아라"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의 야시엘 푸이그(오른쪽에서 두번째)와 핸리 라미레스(왼쪽)가 팀 동료 스콧 반 슬라이크에게 코대형 물폭탄을 선사했다. 11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슬라이크는 3-3으로 맞선 연장 11회말 끝내기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다저스는 이 승리로 자력으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한다. /AP 연합뉴스

프로야구 전적 11일

■목동

팀	1~3	4~6	7~9	R
넥센	001	000	000	1
삼성	200	110	003	7

[illegible]

■마산

팀	1~3	4~6	7~9	R
NC	000	000	000	0
롯데	000	002	000	2

[illegible]

■군산

팀	1~3	4~6	7~9	R
SK	000	100	000	1
KIA	100	000	001	2

[illegible]

완벽투 송승준 4강 불씨 지펴

NC전 8이닝 2피안타 무실점

포스트시즌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진 롯데 자이언츠가 토종 에이스 송승준의 호투를 발판으로 NC다이노스를 꺾고 3연패에서 탈출했다.

롯데는 11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원정경기에서 NC에 2-0으로 이겼다.

6위 롯데는 전날 NC에 당한 2-3 패배를 설욕하고 최근 3연패에서도 탈출했다. 최근 마산구장 4연패 사슬까지 끊었다.

송승준은 올 시즌 들어 가장 긴 8이닝을 책임지면서 단 2안타와 볼넷 두 개만 내주고 탈삼진 6개를 곁들여 NC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송승준이 이전까지 올 시즌에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진 것은 5월 10일 LG전에서의 7⅓이닝이었다.

이날 특히 5회까지 볼넷 둘만 내주고 삼진 3개를 곁들이며 노히트 노런을 기록할 만큼 빼어난 투구를 선보였다. 6회말 선두타자 권희동의 우전상 2루타가 NC의 첫 안타였다. 송승준은 최근 4연승으로 시즌 9승(5패)째를 챙겼다.

타석에서는 4번 타자 박종윤의 한 방이 승부를 갈랐다. 0-0으로 맞선 6회초 선두타자 손아섭이 중전안타를 치고 나갔다. 이 때 타석에 들어선 박종윤은 볼카운트 1볼-0스트라이크에서 NC 선발 에릭 해커의 2구째 시속 143㎞의 투심패스트볼을 받아쳐 가운데 펜스를 넘겼다. 비거리 125m.

롯데는 송승준이 물러난 뒤 9회 마무리 김성배를 올려 승리를 지켰다.

군산구장으로 SK를 불러들인 KIA는 2-1로 승리했고, 넥센과 목동구장에서 '미리 보는 포스트시즌'을 치른 삼성은 7-1 승리를 거뒀다.

잠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두산-LG전은 비로 취소 됐다. /박상준기자

프로축구 전적 11일

홈			원정
수원	1	0	부산
서울	2	0	포항
인천	1	1	전북
대구	1	1	경남
대전	1	2	제주
성남	0	1	전남

[illegible]

온 가족과 함께 더욱 풍성한 9월의 63을 즐기세요!
즐거움이
가장 풍성한 곳
63빌딩
• 63아이맥스 '위기의 산호초' • 스카이아트 FASHION with PATTERN 展 • 63씨월드 '골든벨을 울려라!'
• 추석맞이 외국인 할인(패키지 상품 30% 할인) • 한복 입은 고객 할인(빅3, 빅4)